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나는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나는 어머니
로서 너희 모두를 축복 하노라. 특별히
하느님께서 너희들에게 풍성한 은총을
내리시는 오늘, 기도 하면서 나를 통하
여 하느님을 찾도록 하여라. 하느님께서
는 너희들에게 대단한 은총을 내리시고
있단다. 나의 자녀들아, 이 은총의 시기
를 잘 활용하여 나의 티 없는 성심으로
더욱 더 가까이 다가오기를 바란다. 그
리하여 나로하여금 너희들을 나의 아들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다오.
나의 부름에 응답하여 주어 고맙다.

단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
가 소중히 생각하여 쉽게 잊어버려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단식하도록 결심 해
야만 합니다! 메주고리에 메시지에 대
해서 사람들이 말할 때 “그것은 빵으
로 사는 것이다.” 라고 단순하게 말해
도 무리는 아닙니다. 단식은 몸과 마음
과 영혼에 유익합니다. 단식과 기도를
통해 우리 영혼은 자유를 얻게될 것이
며, 그 자유 안에서 평화, 사랑, 믿음, 신
뢰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단식할 때 우리는 또한 정신적
으로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와
단식을 함으로 사람들이 악령들을 확실
히 물리칠 수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
씀을 기억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그것이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기분 좋은것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성
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도록 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단식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극복하게 되어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주님을 두려워하며



발행인 : 김한기 시몬 신부 편집인 : 남홍익 그레고리오

평화의 모후 센터 U.S.A.

그분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불신은 자기 중심
주의 적인 우리의 이기심과 교만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두려워하고 하느님을 믿지 않았던지 그 원인은
하느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판단의
기준을 우리가 만들어 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방
법으로 우리의 이기심과 교만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쉽
게 말 해 왔습니다. < 이하의 내용은 본지 9페이지에서 계속됩니다. >

사제들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

“이 분이 네 어머니시다”

- 요한 19,27 -



김한기 시몬 신부
뉴욕 그레이트넥 한인성당 주임

7월

5일은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 성인이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이다. 이 축일을 지내면서 한국의 성직자 뿐만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성직자들이 김대건 신부님의 거룩한 순교 정신과 사제적 영성을 본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본다. 하느님과 교회를 위해 몸바치려는 열성과 헌신적 삶 이야말로 동서고금과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 모두에게 특히 하느님의 양떼를 돌보는 사제들에게 요청되는 자세라 할 것이다.

최근 New York Times 지의 5월 28일자 보도에 따르면 뉴욕 맨하탄에서 잠비아의 Milingo 라는 대주교가 한국인 성마리아씨와 통일교 교주 문선명의 주례로 혼인식을 올렸다고 한다. 이 혼인식에는 전직 신부였던 George Augustus Stallings Jr.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60여명의 다른 커플들과 혼인식을 올린 것으로 되어있다. 아프리카 잠비아 출신인 71세의 밀링고 대주교는 38살의 젊은 나이로 주교품에 올라 그동안 계속 엑소시즘(악마 추방), 신앙치유(Faith Healing) 등으로 교황청 으로부터 경고를 받아 오다가 지난 82년 교황청 으로부터 소환을 받아 잠비아 루사카 지역의 교구장 직에서 물러났고, 이 후 이탈리아에 와서 지내면서 계속 불법적인 일을 자행해 오다가 오늘의 이런 비참한 지경에 이른 것이다.



또 필자가 머무르고 있는 Rockville Center 교구는 어떠한가? 최근 Suffolk County 내의 East Meadow 의 Michael Hands 신부가 아동 성추행으로 체포되어 그에 대한 재판 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필자가 있는 St. Aloysius 성당의 Msgr. Alan Placa 가 그의 변호인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어서 앞으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 인근의 Brooklyn 교구는 어떠한가? 지난 해, 교구 내 몬시뇰이 공금 횡령 혐의로 물의를 일으키게 되자 교구는 검찰에서 그를 소환하기 전에 재빨리 그를 캐나다로 피신시켰다고 한다. 몇 년 전에 미 서부의 어떤 교구장 주교도 동성애에 연루되어 소속 교구 사제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 스캔들에 연루되어 교구장 직에서 물러난 일이 있다.

같은 성직자의 입장에서 이 모든 일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처럼 여겨지며 그들을 비난하기에 앞서, 같은 동료의 입장에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한다고 느낀다. 신자들이 생각하고있는 사제들의 거룩한 모습과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고, 세속화되어 있으며 타락한 모습, 이것이 어찌면 나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직자들의 자화상인지도 모른다.

해외 한인 교회에서 일어나는 공동체의 분규와 갖가지 문제점들도 어찌면 사제들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 세속

에 물들고 타락한 모습에서 그 빌미를 제공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는다. 오롯한 마음으로 하느님과 교회를 위해 독신 생활을 서약하는 사제들이 세속의 유혹과 악에 떨어져 자신은 물론이요, 자신에게 맡겨진 공동체와 양들을 저버린다면 그것보다 더 큰 불행은 없을 것이다.

사제들을 모든 어려움과 유혹에서 건져줄 수 있는 분은 근원적으로 하느님이시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낳아 기르시고 인류 구원의 중재자가 되신 성모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것 만큼 중요한 것은 없으리라고 본다. 그러므로 성모님께서는 모든 이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참된 회개를 위해 로사리오 기도를 바치라고 하셨지만 특히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당부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사제들에게는 많은 이들이 달려 있으며 목자인 사제들이 영육간에 건강할 때 그들에게 달린 양들도 안전한 보호와 보살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갖가지 위협과 현대의 세속주의 물결아래 사제들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주님 앞에 서약한 독신제, 정결이 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깨끗함과 거룩함의 상징인 성모님의 전구하심에 도움을 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가 사제서품을 받기 전, 중국 상해를 향해 배를 타고가며 성모님께 의탁하고 기도 하였던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케 한다. 1845년 천신만고 끝에 어떤 교우의 도움을 힘입어 서울에 도착한 김대건 안드레아는 극도로 쇠약하여 근 두 주일을 병상에서 보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전교신부를 이 나라에 인도하기 위해 자신의 모친에게도 귀국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십여 명의 농민과 어부를 데리고 한 척의 작은 목선으로 중국 상해를 향해 바다의 길을 떠나게 된다. 그러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돌연 큰 풍파를 만나, 배는 파선의 위협을 당하게 된다. 그 때 모든 이는 죽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김대건 안드레아는 유일한 희망이신 거룩한 동정 성모 마리아의 상분을 사람들에게 보이며 “두려워하지 마시오, 자! 성모 마리아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모든 폭풍우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으로써 시련을 이겨내며 기도으로써 여러 날을 향해 한 후, 무사히 연안에



도착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는 마침내 1845년 8월 17일 상해 근처 ‘김가항’에서 한국 최초로 사제서품을 받게 된다. 이는 성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의 성모 신심이 얼마나 깊었던가를 잘 엿볼 수 있는 이야기라 할 것이다.

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Totus tuus’ (온전히 당신 것) 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주교직을 오로지 성모님께 봉헌하였듯이 우리 사제들도 성모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면서 세속의 온갖 위협과 유혹에서 건져주시길 간구하고 특별히 모든 사제가 사제 독신제에 충실하여 하느님과 교회를 위해 오롯한 마음으로 자신을 바칠 수 있는 사제적 삶에 매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신자들도 사제들의 닦과 허물을 지적하기에 앞서 사제들을 위해 아낌없이 기도해 주시고 사제들도 모든 점에서 나약한 본성을 지닌 자들임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의 희생을 바치고 애정어린 충고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M**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님과과의 대화

1985년 12월 11일 발간



웨이인 와이블

루터파 교회의 신자이며 신문사 발행인, 컬럼리스트로 활동하던 웨인 와이블 씨는 성모님께서 발현하고 계신 메주고리에 관한 비디오 테이프를 보던 중 강한 내적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 후 성모님의 발현과 메시지 전파에 헌신하게 되면서 '메주고리에' '선교사명' '메주고리에 추수' 등의 책을 썼으며, 지금까지도 계속 영문판 메주고리에 소식을 펴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개되는 내용은 성모님의 부르심을 받은 웨인 와이블씨가 1985년 12월 4일부터 발간한 타블로이드 요약 판에 게재하였던 기사로서,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머틀비치 지방 신문에 6개월에 걸쳐 개별적으로 발간된 것을 본지에서 계속하여 번역문으로 소개합니다.

본 기사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하여 특별히 기획된 4부 시리즈 중 두 번째 글이 되겠다. 첫 번째 기사에 대한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이야기의 성격상 지난 주에 실었던 것과 겹치는 부분이 있음을 양지해 주기 바란다.

첫째, 이 기사를 적고 있는 나 개인적으로는 어떤 종교적인 문제를 떠나서라도 그 곳 메주고리에에서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관련된 젊은이들의 나이로 보아서나 지금까지 매일 일어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나는 이 발현이 현대의 진정한 기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믿음이나, 이 소식에 바탕해서 각 개인이 결정할 일일것이다.

오늘은 아이들과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의 대화 내용을 간추려 볼까 한다.

성모님 발현이 시작된 지 4일째 되던 날, 저녁에 발현은 1981년 6월 24일에 시작되었다. 이반카는 광채 속의 여인에게 이름을 물었고, “나는 복되신 동정 성모 마리아다.”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했다. 비스카는 그 후에 다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당신이 정말 성모 마리아 이시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만일 아니라면 없어져 버리세요!”

(4) MEDJUGORJE

여인은 미소를 짓고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했다. “왜 이곳에 나타나셨습니까?” 비스카가 성모 마리아께 여쭙었다. “이곳에는 착한 신자들이 많다. 나는 모든 이들을 회개시키고 화해시키기 위해 너희들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같은 날 조금 더 늦은 시간에 마리아라 불리우는 또 다른 목격증인 아이도 비슷한 내용을 전하고 있었다. 이 소녀는 첫 번째 발현이 있었던 십자가가 있는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는데 성모님을 만나자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왼쪽으로 달려가 털썩 무릎을 꿇었다. 여기 그 소녀가 한 말을 옮겨 보았다.

“우리의 성모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계시니다. 울고 계세요. 그분은 계속해서 되뇌어십니다. ‘평화, 평화, 평화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여라’ 발현하실 때마다 항상 말씀하십니다. ‘믿어라, 마치 네가 나를 보듯이’ 라고.

6월 29일 어린 증인들은 2살 반 된 아기를 고쳐달라는 특별한 부탁을 했다. 그 아이는 병어리에다 걸지도 못하는 아이였다. 야콥의 말을 인용하여 그 때의 일을 적어본다. “먼저 그 아이의 부모들이 믿어야 한다. 그 아이가 나를

부르심을 받고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한다.”

그날 밤, 그 아이의 가족은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식당에 들렀다고 했다. 그 때 병어리 아이가 식당 탁자를 탕 치면서 “나 목말라요” 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시간 이후 그 아이는 말도 하고 걷기도 했다. 성모님께서는 병에 걸렸거나 장애가 있는 다른 이들에게도 당부하셨다고 했다. 그들의 병이나 장애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단식하며 기도하기를 그 곳 사람들의 보고하는 바에 의하면 많은 이들이 치유되었다고 한다.

치유에 관해서 성모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했다. “나는 병을 고치지 못한다. 하느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란다. 하지만 너희들의 기도와 희생이 내게 많은 도움이 된단다.”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절박하게 말씀하셨다고 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회개하고 변화’ 되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을 온 세상 모든 이에게 전해라. 매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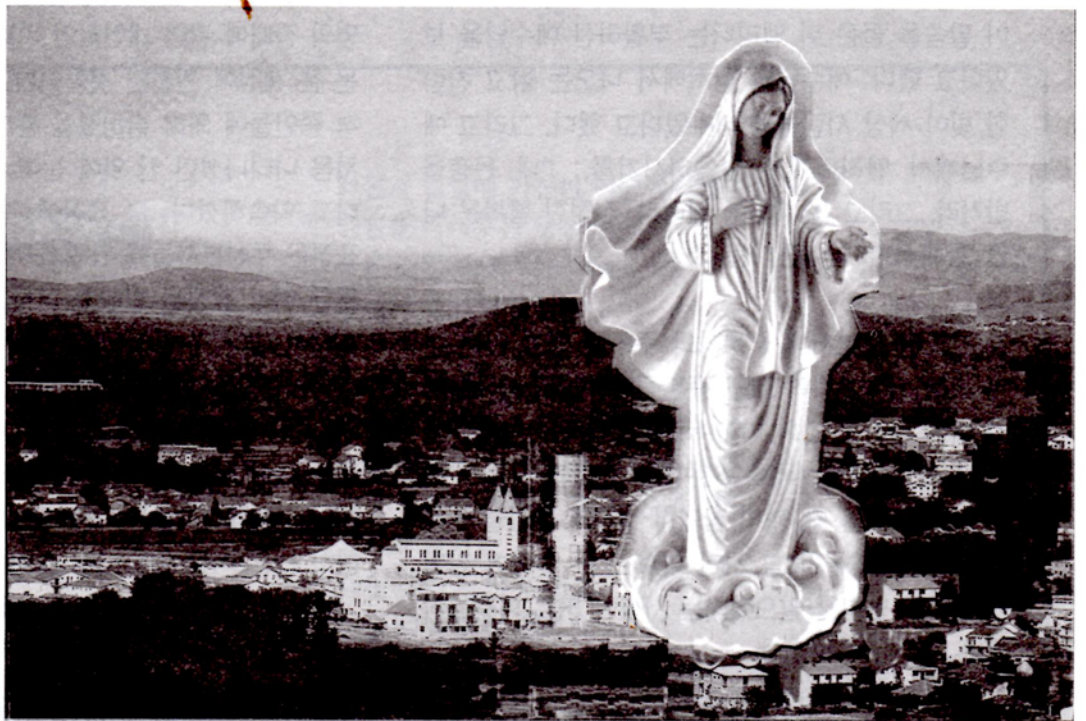
준비하고 하느님께로 돌아서도록 하여라, 그 일에 해가 되는 것들은 모두 포기해 버려야 한다.”

기도와 신앙에 대해서도 언급하셨다고 했다. “나를 보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해다오. 그들은 마치 나를 본 것처럼 굳게 믿어야만 한다고, 그리고 항상 기도해라. 믿는 이들 중에도 기도하지 않고 지내는 이가 많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 움직이는 신앙을 소유하지 못한다.”

어떤 사제가 아이들에게 부탁하기를, “그렇다면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아니면 성모 마리아

께?” “기도는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더냐? 그러니 나는 너희들의 기도가 예수님께로 이르도록 중재를 하고 나도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 그렇지만 모든 기도는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게만 의존하지 말아라. 너희들 각자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달려있단다.”

왜 하필 메주고리예를 택하셨는지도 물었다. “이 곳을 택한 이유는 특별하다. 나는 너희 모두를 사랑



안에서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이 곳 사람들 모두가 완벽한 변화에 이르도록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지역을 찾아오는 순례자들에게 변화의 샘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성모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도 잘 읽어보고 그 참 뜻을 참고하라고 전하셨다고 했다.

1984년 성 주간에는 지역 주민들에게 다음 메시지를 전하셨다. 성모님께서 내적 담화자인 어린 엘리나를 통해 이 조그마한 교구에 전하신 말씀은 다음과 같다.

부르심을 받고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의 문을 열어라. 이 부활절 주간에 예수님께서서는 너희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시고자 한다. 너희가 우리 (성모님과 예수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너희에게 다가가서 어떤 시련을 겪고 있을지라도 잘 넘기도록 해 줄 것이다. 성스러운 해는 다 지나갔고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 마라. 오히려 한 층 더 열성적으로 기도해라. 왜냐하면 성스러운 해는 한발짝 더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들은 뒤 엘리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했다. 예수님의 상처에서 나오는 밝고 찬란한 빛이 세상 사람들을 비추었다고 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엘리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총을 받거라, 그리고 온 세상에 알려라. 진정한 행복은 나를 통해서만 얻어진다는 것을.”

끝으로 이 보고서에서 우리의 주의를 끌고 있는 점은 오늘 날 그 지역 교구 주민들이 매일같이 세 시간 이상 걸리는 교회 미사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물론 예외는 있지만 극소수 뿐이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 기준으로 볼 때, 이미 상당한 수준의 신앙을 소유한 그 곳 주민들이 그 사건 이후 모든 주민이 완벽에 가까운 변화를 일으켰다는 사실이 바로 메주고리에의 기적이라 하겠다.

이 기고란 이야말로 또 하나의 “기적”

이 기고란이 머물비치 밖에서도 배부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았다. 외국의 여러 나라와 미국 각 처에서 쇄도하는 요구에 부응, 쉽게 우송하기 위해 모음집으로 출판되었다. 원래는 2,500 부가 인쇄되었으며 1년 이상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었다. 그것은 1986년 9월이었다. 1987년 12월자로 8백만부 이상이 인쇄되었고, 우송되었다. 주문에 응하기 위해 현재로는 전국에 세 곳의 인쇄소가 마련되었다.

여기서 “기적” 이란 메주고리에의 수 많은 다른

사건들처럼 이 일도 전혀 계획되지 않았던 것으로 그냥 그렇게 되었을 뿐이다. 자기 본당이나 기도회, 가족들에게 이 기고란을 보내주고 배포하는 이들은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과 복되신 성모 마리아께서 여러분의 협조에 계속 강복하시길

비밀들

모든 여섯 발현 목격자들에 의하면 비밀들은 실질적으로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다. 어떤 비밀은 이들 몇 명의 장래에 관한 개인적인 비밀들도 있으나 다른 비밀들은 온 세상에 관련된 것들이다. 단지 하나의 비밀만이 목격 증인들에 의해 밝혀졌을 뿐이다. 성모님께서서는 당신이 처음 나타나셨던 산 위에 눈에 보이는 표징을 남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표징에 관한 성모님의 말씀은 “이 표징은 무신론자들을 위해 주어질 것이다. 너희들 믿는 이들은 이미 표징을 받았고 너희들 자신이 무신론자들에게 표징이 되어 주어야 한다. 너희 믿는 이들은 변화하기 전에 이 표징을 기다리려고 하면 안된다. 어서 변화하여라. 지금이 너희들을 위한 은총의 때이다. 하느님의 이러한 은총에 대해 너희들은 결코 충분히 감사드릴 수 없다. 너희들의 신앙을 깊이하며 변화할 때이다. 표징이 주어질 때는 이미 많은 이들에게 너무 늦었을 것이다. **M**

<다음호에 제 3부가 계속됩니다>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를 전어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하루 하루의 삶에는 많은 사연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기쁜 일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슬픔과 괴로움은 도우심을 청하는 마음으로 모든 소망들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매 월 순례 때마다 매일 오후 6시 45분에 성모님의 발현을 직접 뵈고있는 비스카에게 전달하여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에 주님과 성모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문 보내실 곳>

평화의 모후 센터 U.S.A.

22 Round Swamp Rd. Huntington, NY11743
Tel.(631)367-6191 / Fax.(631)367-6194



마리아 공동체 평화의 오아시스

- 고무니타 마리아나 - 오아시 델라 파체 -
Comunita Mariana - Oasi della pace

“마리아 공동체 - 평화의 오아시스는 성령께서 근래에 교회 안에 싹트게 하시는 새로운 형태의 봉헌된 삶으로 수녀, 수사, 신부 등이 성모님께 대한 자녀적 사랑 안에서 하나로 모인 수도 공동체입니다.

또한 재속 수도자의 그룹과 평신도 부부 그룹도 우리 공동체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봉쇄가 아닌 관상 공동체로 삼대허원 즉 정결, 청빈, 순명의 허원을 하며 또한 우리 수도 공동체의 특별 허원인 “평화가 됨”의 허원을 합니다. 성 바오로는, 에페소인에 보낸 서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자신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평화를 이루셨고 또 인류와 하느님과의 화해와 평화를 이루셨다고 가르치며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라고 말씀하십니다. <에페소 2,14-18 참조>. 그러므로 우리의 특별 허원인 “평화가 됨”은 우리의 삶 안에서 평화이신 예수님의 수난, 죽음과 부활에 깊이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창설 역사

1985년 말, 예수고난회의 이태리 신부님인 잔니 스크레바(P. Giammi Sgrdva)신부님께서 메주고리의 크라자밧 십자가 밑에서 두 이태리 청년을 만남으로 해서 이 수도 공동체의 창설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메시지를 삶으로 사는 기도 모임을 목적으로 메주고리에서 회개와 은총의 선물을 받은 이태리 젊은 이들이 모였고 이 모임이 성장하면서 1987년 3월 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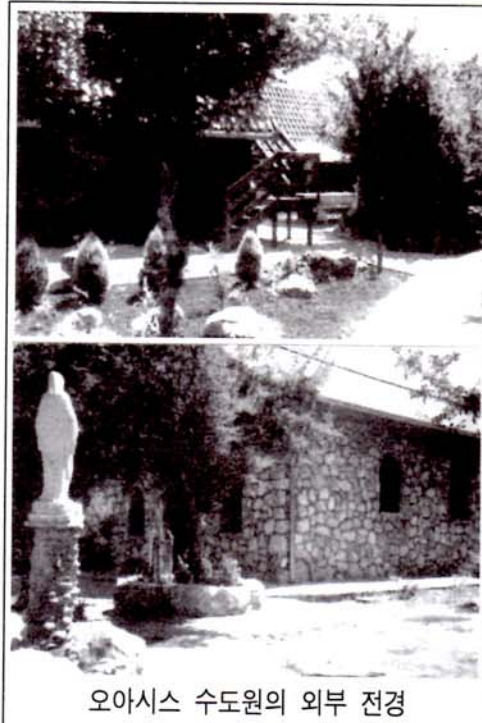
프리아보나(Priabona, Italy)에서 Private Association of Faithful의 발족을 보게 되었습니다. 14년이 지난 오늘날 약 110명의 수녀, 수사, 신부 회원, 재속 수도회원 또 부부회원들도 그 숫자가 계속 증가 하고 있습니다.

영성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성 요한에게 “이분이 너의 어머니 이시다.” <요한 19, 27 참조>. 하신 말씀으로 성모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구원된 인류의 어머니가 되셨고 이 십자가 밑의 성모님이 우리에게서 각별히 사랑받는 성모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대다수가 성모님을 통해 회개나 성소의 은총을 받았고 그러므로 성모님께 대한 자녀적 사랑으로 성모님의 인류 구원사업에 그 자녀로서 참여하고자 하는 열망이 이 수도 공동체의 근본적 창설 동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메주고리의 성모님의 메시지를 삶으로 살며 또한 성모님의 이끄심으로 성교회의 쇄신에 봉헌하며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온 인류가 회개하여 하느님과 화해하는 것을, 즉 하느님과 인류간의 평화를 실현하려는 성모님 사업의 도구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성소를 살기위해 구체적으로 세가지 영성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전구, 보속, 받아들임(영접) 이것은 하느

님의 평화는 간구되어야 하고, 값은 치러야 하며, 또 함께 나누어져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아시스 수도원의 외부 전경



전구 : 기도와 각자의 삶의 봉헌을 통하여 하느님께 평화의 은총을 끊임없이 간구 하는 것입니다.

보속 : 단식과 속죄(Penitence)를 통하여 우리와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구원사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임(영접) : 3가지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첫째 : 수도 회원간 서로 받아들이는 것

둘째 :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거나 내적 상처로 고통받으며 하느님의 평화를 찾는 이들에게 우리의 삶(기도, 일, 공동생활)에 동참하게 함으로써 그 안에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외부인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정기간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셋째 : 1년에 3번 혹은 4번, 본당 전교를 하며 더 넓게는 교파를 초월하여(ecumism), 특히 러시아 정교회와의 대화를 추구 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매일 미사를 포함하여 일일 평균 7시간 기도하며 그중 공동 기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전구”의 영성을 살기위한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발적인 전구와 또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지향을 전구하며 성무일도의 아침기도, 저녁기도 중, 목주기도 중, 미사 중의 전구, 또 개인적 성체조배 중에 주님께 전구 기도를 드립니다. 또 미사지향을 받았을 때 미사를 봉헌합니다.

우리는 베네딕도회의 성무일도서를 사용하며, 끊임없는 성체현시를 하며 회원들은 일일 1시간 개인 성체조배를 합니다. 또 매일 목주 15단을 기도하며 찬미기도와 십자가의 길 기도도 합니다. 마음으로 기도 할 뿐만아니라 몸으로도 기도하기 위해 또한 보속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매주 수요일, 금요일 빵과 물로 단식합니다. 대부분 오전 시간에 공동일이 분배되고 일하는 기간 중에도 내적으로 성모님과 일치하며 기도 하도록 노력합니다. 오후에는 영적독서, 개인적 교리공부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건이 허락하는 곳은 젖소, 돼지, 닭, 토끼 사육, 양봉, 또는 올리브밭, 채소밭, 포도밭 등을 가꿉니다. 우리는 소득을 벌기위한 사업을 하지 않으며 우리 손으로 가꾼 것을 통

해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데 이것은 성모님께서 메주고리에 에서 주신 메시지 중의 하난인 마태복음 6장 24-34절을 우리 삶 안에서 실제적으로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구성원

우리 수도 공동체에는 14명의 사제가 있으며 약 110명의 수녀, 수사, 신부들이 본원과 10개의 분원에 분포되어 기도, 미사, 식사를 함께하는 공동 생활을 합니다. 재속 수도자는 4개 허원을 하며 세상 안에서 각자 자신의 직장에 종사하며 세상 안에서 “평화가 됨”을 증거하는 삶을 영위합니다.

평신도 부부는 우리 특유의 허원인 “평화가 됨”만을 허원하며 각 가정 생활을 영위하며 정기적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 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성모님의 부르심을 받아 전세계 20여개국에서 온 남녀 회원들이 예수님과 성모님을 중심으로 모인 국제적 수도 공동체로 평상용어로는 이태리어를 씁니다. 브라질, 자마이카, 카메룬, 러시아,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메주고리에)에 우리 분원이 있고, 이들 분원에서는 이태리어와 그곳 토착어를 공용합니다.

우리 수도공동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먼저 본회와 서신 왕래를 하여, 그 후 우리 수도공동체 안에 일정기간 함께 살며 우리 삶을 체험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지원기, 6개월 청원기, 1년-2년 수련기간이 있습니다. 수련기 이후 3-6년 간의 단순회원 기간이 있고 그 후 종신허원을 할 수 있습니다.

주소 : Sr. Maria Ioanna
Comunita Mariana-Oasi della pace
Casa Generalizia
C.P.25
02036 PASSO CORESE (RI)
ITALIA


Tel.: 0039-0765-488993

Fax.: 0039-0765-488992

e-mail : oasispaci.pc@uni.net

website : www.tiscalinet.it/oasidellapace

이 기사는 한국인 성소지원자들을 위하여

한국인이신 마리아 수녀님께서 투고해 주셨습니다. 



< 표지에서 이어지는 내용 >

종종 우리가 누군가를 좋다거나 나쁘다고 말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실제의 모습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 생각에 의해 만들어진 기준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에 대해 정말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의 이기심과 교만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시도록 하느님께 청해야 합니다. 또한 하느님의 뜻을 자유롭게 깨달을 수 있도록 역시 그분께 청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평화속에 머물게 하는 것이며 우리가 우리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과 자연과 그리고 하느님과 좋은 친교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 길을 통해 사람들은 평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의지는 너무나도 자주 우리를 불균형 상태에 놓이게 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아 들이면 그 때 우리는 평화의 사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절부터 성령강림까지의 이 시기동안 우리가 자신의 의지를 극복할 수 있도록 참되게 기도하고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M**

1998년 4월 / 슬라브코 신부님의 글

이웃과 사랑을 나누기

어느날, 두 젊은이가 가난한 이들을 위해 쓰라며 큰 액수의 돈을 나에게 가져왔습니다. "이 많은 돈을 어디서 구했지요?" 라고 물으니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틀전에 결혼한 사람들인데요, 큰 피로연을 갖지 말자고 이미 결혼 전에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징표로서 피로연에 쓸 돈을 마더 데레사께 갖다 드리자고 약속했답니다." 이 젊은이들의 행동은 얼마나 훌륭한가요! 참으로 너그러운 젊은이들이지요, 왜 그렇게 했느냐고 내가 다시 물었더니 그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었어요, 특히 수녀님들이 돌보는 이웃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 마더 데레사의 '따뜻한 손길' 중에서 -

기도

무릎꿇어 당신앞에 두 손 모으니
그리움에 이가슴 설레입니다.

충실치 못했던 지난 날들에
가슴 저미는 아픔으로 통곡합니다.

머리로만 당신을 알았을 때
당신은 제게 너무나 먼 분이셨습니다.

귀로만 당신을 들었을 때
당신은 제게 지나가는 바람이었습니다.

입술로만 당신께 기도할 때
당신은 허공에 울리는 빈소리였습니다.

이제
가슴으로 당신을 느끼니
오오 나의 사랑이시여
당신은 제게
끝없는 그리움이며
온 몸을 태우는
사랑입니다.

<최혜숙 세실리아>



성모님 저를 너무 자주 부르지 마세요.

성모님, 제가 필요하다고 할 때만 오시고 제 방에는 노크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나 할 일이 많기 때문이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밤 낮을 못가릴 정도로 밀린 일들과 아이들의 뒷바라지에 너무나 바빠서 정신을 못차릴 정도입니다. 저를 부르시는 성모님을 느낄 때마다 이렇게 변명을 하며 요리 조리 피해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느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라 안에 하느님이 오셔서 제가 원하는 것들을 지켜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그런 예수님과 성모님 이시기를 간절히 구해 왔었습니다. 그러기에 지난 4월에 있었던 퀸즈 성령기도회의 메주고리에 순례를 신청은 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취소하려고 한 것이 몇 번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혈당의 수치가 기하급수로 오르며 (저는 당뇨와 혈압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머리에 사방으로 진통이 오며 너무나 아파서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모를 정도였습니다. 복용하는 약의 양을 늘리기도 하고 조용하게 쉬기도 해 보았으나 25년 동안의 간호원 경력이 무색하리 만큼 도무지 차도가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큰 일인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문득 '아! 이것이 특별한 은총의 초대인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메주고리에는 꼭 가야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나니 내 자신도 모르게 어느 덧 건강이 정상적인 균형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메주고리에 가서도 나의 시각과 후각 청각 그리고 촉각으로 확실하게 성모님을 만나고자 하여, 처음 이틀 동안은 무척 신경을 쓰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성모님은 저의 방법으로 만나주시는 대신에 성모님의 방법으로 더 확실하게 저를 만나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저도 모르게 제 마음 깊이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성모님은 세상일에 물혀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있었던 모든 문제를 해결시켜 주셨습니다. 특히 사춘기를 지내고 있는 큰아들 때문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일행들과 함께 십자가산을 오르던

서 14처를 묵상하고 있을 때, 성모님은 외아들이신 예수님께 어떤 어머니이셨는지가 묵상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사방으로 돌아다니시다 결국은 가장 비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큰 십자가를 끌며 넘어지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초라하고 비참한 아들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래도 넘어진 아들에게 달려가시는 성모님은 강한 의지력의 어머니 이셨으며 온유하심과 인내, 그리고 무엇보다 큰 사랑으로 세상에서 버림받고 단죄받은 이들을 감싸 주셨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아이들을 대하는 제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사랑하면서도 이해하기 보다는 질책하고 요구하는 엄마로서 늘 만족치 않은 마음으로 살아왔음을 알았습니다. 제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아이들이건만 왜 저는 성모님 같은 사랑을 아이들에게 주지 못했을까? 왜 성모님같은 온유함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그때 그때의 상황을 이해하고 감싸주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 집에있는 아이들에게 몹시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평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를 사랑해 주시는 성모님을 저의 어머니로 받아들이며 메주고리에 순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후, 침대의 사춘기를 보내며 힘들어 하는 큰아들을 바라볼때 원망하기 보다는 측은한 마음으로 안타깝게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있는 작은 것들에게도 깊은 만족을 하게되었고 부와 사치에 대한 유혹도 없어졌으며 오히려 이제는 그런 것들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니 그렇게 높던 혈당치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지금은 복용하던 약도 줄이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건강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치의에게 확인되 사항입니다.)

성모님은 제가 이렇게 치유되는 은총을 체험하게 하심으로써 제가 이웃들의 평화에 맛을 더해주는 조미료가 되게 해주셨고, 저와 이웃들을 치유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사진을 벽에 걸어놓고 부터는 그 옛날 첫아기를 낳고 잠시동안 제가 엄마라는 것을 망각한

채 친구들을 만나서 실컷 놀다가 문득 아기가 집에서 나를 기다릴 것이라는 생각에 너무나 놀라서 집에 돌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성모님이 집에서 나를 기다리실 것이라고 생각하니 너무나 마음이 편안하고 걱정이 없답니다.

가끔씩 매일미사를 가는 성당을 메주고리예의 '제임스 성당'으로 집 뒤를 메주고리예의 십자가산으로 생각하며 그곳에서 체험했던 깊은 평화를 되새겨 봅니다.

어머니,

이제는 저와 항상 계시고

어머니께서 원하실 때는 언제나 제게 다가와 주세요.

이젠 모든 것을 예수님과 어머니와 함께 하여서

정말 진정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위에, 나의 가정과

나의 마음에 임하시도록 아버지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이끄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 스테이튼 아일랜드 성당의 송석순 크리스티나 -

“주님 때문에”

하루 하루 터무니 없는 슬한 욕망
위태로운 삶의 곡예에서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은
한량없는 당신 은총 있기 때문입니다.

죄속에 죄를 낳고
거듭거듭 넘어지며
자업자득 쌓아온 절망의 울무에서
생존마저 슈린 당한 채
규범없고 말소할 수 없는
비참한 고통 죽음일지라도
저버리지 않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당신 성령 보호해 주심 때문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으시며
천년이 하루같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현존하시는 당신 안에
속절없이 덧없는 인생
일회용 휴지같은 무상함을 키우며

좌절과 절망에 기진한 이승살이 일지라도
영원을 싹틔우는 당신 안에
푸른 희망 솟구치는 내일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숨쉬고 존재하는 누리에 있는 모든 것
참으로 찬양해야 할 세상의 모든 것이
소리 소리 심장 뜨거운 사랑의 울림으로
미쁘사 참된 평화의 주 그 은덕 기리며
감사와 찬미로
내뜻 아닌 당신 뜻대로
내삶 아닌 당신 삶으로
한생애 온전한 봉헌이 되고저 함은
당신은 내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 박송죽 시인의 "생의 한가운데로 스커가는
불의 바람이 되어" 중에서 -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

어린 시절의 나의 하느님 세계는, 내 나이 10여살 정도 때 불교 신자이시던 어머니가 암 선고를 받으신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새벽기도에 나가시며 시작되었습니다. 여섯 오빠에 그토록 아버지가 원하시던 딸인 나를 막내로 얻으셨으니 내 기도밭(?)이 가장 먹혀들거란 어머니의 생각이셨으리라 지금 이 나이에 짐작해 봅니다. 어쨌든 나만 몇 번 엄마 손에 끌려 교회란 곳에 가 의자에 앉아 잠만 자다 왔던 그 기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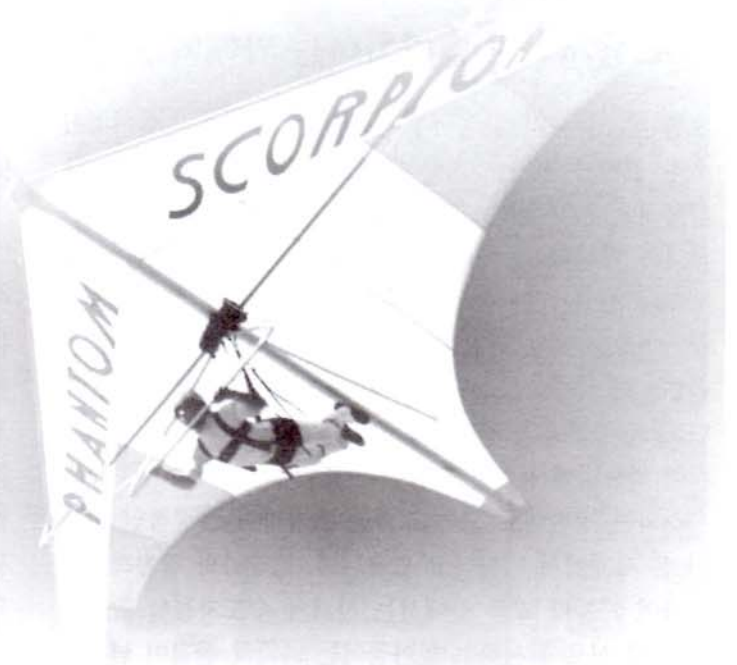
엄마를 교회로 이끌어 준 5촌 당숙이 교회에 나가 헌금 많이 하면 아버님을 살릴 수 있다고 해서 낸 그돈이 교회보다 그 아저씨의 주머니로 더 들어간 사실을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우리 식구들이 알게되었고 그 후 교인은 우리집 식구에게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 후 20여년이 지나 난 한 딸의 어머니가 되었고, 처음부터 크게 엇나간 결혼 생활에 자식때문에 눌러 앉아 버렸지만 부모님도 안계시고 여섯 오빠는 나의 의논상대가 안되었습니다. 난 항상 어려서부터 외로웠습니다. 군중속의 고독이랄까? 그 많은 식구 안에서도 여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공유할 수 없는 뭔가가 항상 내 주위를 맴돌았고 여자 형제가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내 결혼 생활이 힘들고 어른이라는 인생의 무게가 나를 짓누를 때 난 종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교회는 그냥 싫었습니다. 천주교란 뉴스 화면에서 짧게 본 교황님의 모습과 기타 화면이 나의 지식 전부였습니다. 미사 예식이 근사해 보였습니다. 내 발로 찾아가 영세교리를 신청했고 그때 미국에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2년동안 거절하던 남편이 갑자기 허락하는 바람에 난 서둘러 아이와 먼저 미국으로 와 버렸습니다. 오빠네 놀러와서 봤던 미국이, 아이 교육이며 여러가지로 좋아 보였고 첫째로 남편과 떨어지는 것이 더 기뻐했습니다. 영세 후 바로 왔으니 아는 것도 없고 나를 신앙적으로 이끌어 줄 사람도 없는 외로운 시기에 일요일 미사를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당만 나서는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미국에 온 3개월 후,

IMF가 터졌고 남편은 생활비를 보내주기도 힘들어 했고 공부하려고 마음 먹은 애초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 때 나는 기도 했으나 절실하지는 않았습니 다. 하느님을 계속 믿을테니 미국에서 정착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 기도가 나의 큰 시험이 될 줄을 나는 예상도 못했고, 망하고 빈 손으로 미국으로 온 남편이 주선해 들어온 것이 종교비자였는데 그것이 통일교 였습니다. 개신교도 아닌 통일교 , 그때 처음 많이 울었고 하느님께 매달렸습니다. 어떻게 할 지 몰랐습니다. 방황하던 내게 주위에선 하느님도 이해 하실거라고 거기에 가도 내 마음만 굳으면 된다는 그말에, 그리고 불법체류 하기 싫은 내 욕심에 난 달라스로 이사와 그곳에 나갔고 돈 잘벌던 한국에서도 좋은 사이가 아니었던 우리 부부사이 는 기름을 부은 듯이 분리되어만 갔습니다. 일요일마다 나가라고 성화를 부리며 날 더 괴롭힌 것은 남편이었는데 남편은 비신자였기에 무슨 짓을 해도 영주권만 있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일이라고는 안해 본 내가 생전 처음 일, 그것도 막일을 하게 되었으니 죽고싶은 마음만 굴뚝 같았으나, 한국에는 자존심 때문에 일체 얘기하지 않았습 니다. 하루가 지옥 같았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면 내 영혼도 팔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방황 했습니다. 일도 그만두고 지내던 어느 날, 집 근처 매일 다니던 길에서 그동안 봐왔던 미국 성당에 들어가보게 되었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소극적인 내 성격에 몇 번을 다짐하다 들어간 날 나는 많이 울었습니다. 통일교 사람들이 알게되면 안되기에 한국 성당은 못나갈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던 때, 고마운 자매님이 이치훈 신부님과의 면담을 주선해 주셨고 그 때 난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느끼게 되었으며, 그 이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매일 미사를 거르지 않고 있습니다. 6일은 미국 성당으로, 일요일은 한국 성당으로 , 그리고 지금 난 불법체류자가 되었지만 마음은 행복합니다. 그 행복은 금방 얻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통일교 비자를 포기하고 하느님 안에서 살려고 마음먹었을 때 몸에 이상이 생겨 병원에 갔더니 자궁 근종이라서 수술을 해야 한다니 ... 전입가경이었습니다. 의료보험도 없고 또 두려움에 너무 괴로

울 때 성령세미나를 가게되었습니다. 아이를 남편에게 맡기고 집을 떠난 것은 결혼 후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은 완강한 나를 미친 여자 보듯 했지만 날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난 성령을 받았고 이젠 내 자신이 하느님이 정말 있으실까? 라는 말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병이 치유되길 원했고, 내가 얻고싶은 것에만 매달렸습니다. 그 이후 몇 번의 더 큰 시련으로 하느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셨는데, 나는 영주권도 포기하며 주님을 따르는데 왜 고통을 주시느냐며 건방진 질문을 하면서 원망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깨달은 것은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께서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주님은 날 더 사랑하시고 더 잘 아시기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 바보도 알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너무 똑똑해서 겠지요. 어떤것이 똑똑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끝으로 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나는 숙면을 취하는 편이라 꿈을 기억하지 못하는 편인데 그 중 어릴 적 꿈이 더 선명합니다. 아버님은 제가 12 세 되던 해에 돌아가셨는데 일주일도 안되었을 때, 꿈에 아버님이 우리집 대문으로 들어서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꿈속에서도 “어! 아빠,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살아 오셨어요?” 하니 “나, 안죽었어.” 하시면서 엄마 불에 뽀뽀를 하시는데 빨간 핏자국이 엄마 불에 입술모양으로 찍혔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이사했는데 그 집으로 가자고 하시면서 화면이 영화처럼 바뀌어서 큰 흰 담벽과 대문앞에 우리 온 식구가 서 있는 것이었는데, 내가 좋아서 펄쩍 뛰면서 이게 정말 아버지 집이냐고 여쭙어 봤더니 그렇다고 하시며 이제는 우리 모두 이곳에서 함께 살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담이 얼마나 높은지 올려다 보니 고개가 꺾일 정도였으며 그 순간 큰 문이 자동문처럼 열리는데 가운데 하얀 돌길 같은 것이 몇 마일은 이어지고 그 저 끝에 흰 궁전이 서 있었습니다. 지붕은 모슬렘 사원같은 모습이었고 양쪽으로는 그 넓은 들판에 온갖 색의 꽃들이 만발해 있으며 햇살이 은



가루처럼 흩뿌려 반짝였습니다.

나는 3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그 꿈을 선명히 기억하는데 그동안 잊고 지내던 그 꿈의 의미를 요즘 새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내가 스스로 성당에 가서 우리 일가 중 유일한 천주교인이 되었으며 왜 개신교에서 기도를 받고 돌아가신 아버님이 날 성당으로 이끄셨는지?

아직은 자라는 아이같은 나의 신앙이 성숙해질 때 더 확실한 하느님의 역사 하심을 알 수 있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난 지금 아이를 낳고 느꼈던 그 행복함을 예수님을 보며 느끼고, 내 아이와 눈을 맞출 때 가슴이 저리는 사랑을 느끼듯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 사랑을 느낍니다. 내 환경은 내 일생 최악이지만 내 마음의 평화는 내 일생 최고입니다. 내 신앙 내가 잘 지켜 나가길 내 스스로 격려하고 특히 우리 오빠들과 혈육같은 내 친구들을 하느님 안에서 살게끔 인도하는 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느님을 잊고 살기 때문에 아직 남편과의 문제도 다 풀지 못했고 하느님의 가르침대로 사람들을 사랑하려 해도 그것이 쉽지가 않지만, 그러나 노력해 보리라. 내가 죽어 하느님 앞에서 그리고 내 아버지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되기 위하여

- 달라스 김대건한인성당의 전수진 레지나 -

편집실에서 전하는 소식

서로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화해의 물결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2000년 대회년을 맞이하실 때 교회가 저지른 지난 날의 잘못들에 대하여 용서를 청하시고자 하실 때 교회의 많은 원로들께서 몹시 반대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잘못을 인정하면 교계 제도의 권위가 큰 손상을 입을 것이고 그 후의 후유증이 클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황님은 많은 원로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교회가 저지른 지난 날의 잘못을 인정하시면서 온 세계의 인류에게 사과하시며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셨습니다. 그 후 교회 원로들의 우려와는 정반대로 모든 교파를 초월하여 긍정적인 반응이 온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황님의 겸손하심에 대하여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사제와 수도자들이 솔선수범 하여 서로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화해의 물결이 넘치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평신도들은 가톨릭 교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더욱 깊게하고 평신도들 사이에서도 화해와 일치 운동이 급격히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동안 가톨릭 교회가 다른 종교를 향해 추진하고 있던 교회 일치 운동에도 예기치 않았던 큰 진전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얼마전 교황님께서서는 캔터키주의 루이스빌에 총 본부를 두고있는 미 장로교회의 총책임자이자 지도자로부터 편지를 받으셨습니다. 그 서두에는 베드로의 후계자이신 교황님께 라고 시작되었으며 두 교회는 상호간에 많은 차이점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거룩하신 성삼위 안에서 구세주이시며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한 믿음 안에서는 같은 길은 가고 있다고 표명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아틀란타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의 노인기도회와 정발바라, 미네소타 죄종건, 뉴저지 권마리안나, 텍사스 황마리아 막달레나, 디트로이트의 윤막달레나, 베이사이드 평화의 모후 기도회, 뉴욕 퀸즈성당의 성령기도회, CA 김철석 부부, 버지니아 김안나, 김마리아 -- 지면상 존칭을 생략하였으며, 메주고리에 소식지에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4) MEDJUGORJE

2001 미동북부 성령대회

“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충성스런 군인답게
그대가 받을 고난을
달게 받으시오.
- II 디모테오 2:3-
”

주강사 : 임언기 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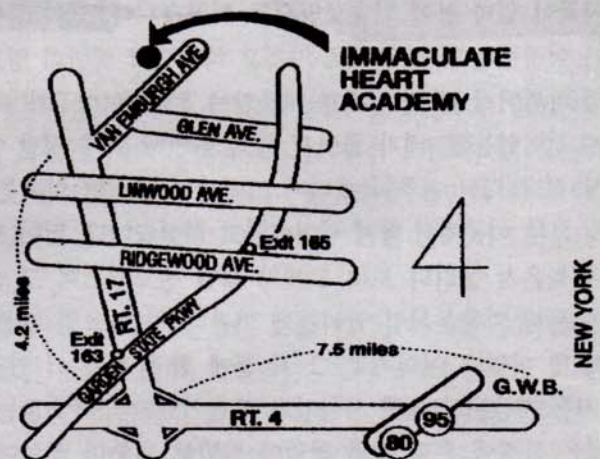
치 유 : 박용일 신부, 김택구 신부

강 사 : 윤석린, 임문수, 정영옥

일 시 : 2001년 7월 21일(토) 8:30am-10:30pm
2001년 7월 22일(일) 9am-6pm

장 소 : Immaculate heart academy
500 Van Enburgh Ave.
Washington Township, NJ

문의처 : Tel.: (201)398-1170 / Fax.: (201)398-1171
(봉사자협의회 사무실 : 이 테레사 자매)



8월 청소년들의 메주고리에 피정

International Youth Festival at Medugorje

메주고리에 본당에서는 매년 8월 첫주를 청소년을 위한 주로 정하고 Youth Festival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질만능과 인간성 상실의 시대에 살고있는 전세계의 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의 삶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느님과 성모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영육간에 건강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이 행사는 전세계의 청소년들이 참석하여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축복과 함께 하느님의 현존하심을 체험함으로써 변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인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순례 일정 : 2001년 7월 29일 부터 8월 6일 (8박 9일)

지도 신부 : 추후 발표

순례 경비 : \$1590 - 뉴욕 JFK출발기준

연 락 처 : 남 그레고리오 Tel.(631)367-6191, Fax.(631)367-6194

- 현대식 숙박시설을 갖춘 2인 1실, 또는 3인 1실과 함께 1일 3식(아침, 점심, 저녁)을 제공합니다.
- 메주고리에 순례 일정에는 유럽에서 긴 역사와 견고하기로 유명한 성곽도시로써 아드리아 해안가의 아름다운 경치로 널리 알려졌을 뿐만아니라 가톨릭을 고수해 오며 1700년 동안이나 썩지않고 있는 실반 성인의 기적의 유해가 있는 유명한 신앙의 유적지인 Dubrovnik성지순례와 Split에 있는 성지순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메주고리에 순례를 원하시는 신부님과 수녀님들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0명 이상의 그룹은 원하시는 날짜에 순례일정을 정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 평화의 모후 센터 U.S.A.에서는 세계 곳곳에 발현하시어 우리들을 위하여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성모님의 소식지를 매 월 발행하고 있습니다.
- 메주고리에에 관한 서적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메주고리에에서 주신 성모님의 메시지가 1, 2, 3편의 테잎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 매 월 순례가 있으니 남 그레고리오 형제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메주고리에 8월 순례

“나의 부름에 응답하여 주어 고맙다”

하느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성모님께서 메주고리에에 발현하시어 부르고 계신지도 20주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간절한 기도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청하는 마음으로 거룩하신 성모님의 **승천 대축일**을 메주고리에에서 보내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순례 일정 : 2001년 8월 13일 부터 22일 (9박 10일)

지도 신부 : 추후 발표

순례 경비 : \$1590 - 뉴욕 JFK출발기준

연 락 처 : 남 그레고리오 Tel.(631)367-6221, Fax.(631)367-6194

평화의 모후 센터 U.S.A.

- 1) 거룩한 공의회는 모든 평신도들이 성령의 움직임에 기꺼이 아낌없는 마음으로 응답하고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그들을 특별히 긴급하게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호소한다. -비티칸 공의회 평신도 교령 33항- 는 말씀에 응답하여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 2) 1981년 6월부터 현재까지도 메주고리에라는 작은 산골마을에 매일 발현하고 계시며 매달 25일에는 하느님의 메시지를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전해 주시는 성모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고자 합니다.
- 3)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서 깊은 체험을 통하여 사랑이 가득한 기쁨과 평화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한 알의 작은 밀알이 되고자 합니다.
- 4)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매달 첫째 토요일에 티없으신 성모 성심에 기도드리며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 메주고리에 성지순례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평화의 모후센터 U.S.A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평화의 모후 센터 U.S.A. 회원모집 안내

성모님의 메시지 ‘메주고리에’ 100부면, 1000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이고 능동적인 복음화 운동에 적극 참여 하시고자 하는
 한인 가톨릭 공동체 회원을 모집하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모후 센터 U.S.A.는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으로 운영됩니다.

주문량	(1) 25부 <찬조금 \$25 + 우송료 \$5>	합계 \$30 ()
	(2) 50부 <찬조금 \$50 + 우송료 \$5>	합계 \$55 ()
	(3) 100부 <찬조금 \$100 + 우송료 \$10>	합계 \$110 ()
	(4) 250부 <찬조금 \$250 + 우송료 \$20>	합계 \$270 ()

* 해당란에 해 주시고 수표 발행은 QPC U.S.A. 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인	성명	(한글) _____	(영문)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팩스 _____

주문처

평화의 모후 센터 U.S.A.
Queen of Peace Center U.S.A.
 22 Round Swamp Rd.
 Huntington, NY 11743
 Tel. (631)367-6191 / Fax. (631)367-6194